

최중열 국제회장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예방

송상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회장과 공동관심사 논의



최중열 국제회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 마포구 소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를 방문하여 봉사단체로서의 공동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활담하고 우의를 다졌다.

최규동 국제이사와 안두훈 지명이사가 수행했고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김명신 부회장(354복합지구 전의장) 이기철 사무총장, 박 순 한국본부장이 배석했다.

이번 방문 행사는 김명신 부회장의 주선으로 성사되었는데, 송상현 회장은

UN산하기구인 유니세프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운영전반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고, 한국라이온스 회원들도 유니세프 아너스클럽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국제형사재판소장을 역임한 송상현 회장은 특히, 전 세계 아동들의 기아와 질병은 물론 아동의 지위향상과 권리보호에 유니세프가 앞장서고 있다고 밝히고, 이에 한국위원회는 아시아 어린이들

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School for Asia(100억 원의 기금으로 아시아 11개 저개발국가에 지원)를 소개했다.

이에 최중열 회장은 세계최대봉사단체인 라이온스는 이미 UN뿐만 아니라 UN산하 유니세프, WHO, FAO 등 여러 기구와 협력하고 있다고 답하고 한국라이온스에서도 아프리카 케냐에 중학교를 지어주고 후속사업으로 맑은 물 공급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최중열 회장은 한국라이온스는 앞으로 세계에 더 많은 눈을 돌려야 한다고 하면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코로나 확산방지를 위한 마스크나누기 공동 봉사사업을 모색할 때라고 했다.

이어 최중열 국제회장을 비롯한 방문단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옥에 마련된 구호품 창고와 각종 체험학습 부스를 참관했다. (9면 라이온스학습센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소개' 참조)